

광주 공예문화상품, 세계 시장 공략 나선다

광주디자인진흥원, 파리 메종&오브제서 전시관 운영 더자기플러스 등 5개 공방 출격...수출 역량강화 지원

광주지역 공예문화상품들이 세계 최대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인 '2025 파리 메종&오브제 (Maison & Objet Paris)'에 오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4일(현지시각)부터 8일간 프랑스 파리 노르빌팡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파리 메종&오브제'에 지역 공예문화상품 공동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5년 창설된 '파리 메종&오브제'는 13만㎡ 규모의 전시관에서 해마다

140여개국 2300여 브랜드가 참여하고, 수만명의 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한국의 전통 문화는 물론, 지역 공예상품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우수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프랑스 유통업체 등과 100여건의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및 2억 원 상당의 계약·판매 실적을 거둔바 있



'2025 파리 메종&오브제'에 출품하는 더자기플러스의 도자 제품 '차곡차곡'.

유, 한지분야 등 60여종의 공예상품을 전시,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상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통해 더자기플러스, 에이앤즈협동조합, 한경희조형연구소, 수다도 유, 한지분야 등 60여종의 공예상품을 전시,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상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다도자기(대표 이영순)와 연제(대표 김 숲)도 달항아리 등 26종의 상품을 전시한다.

자, 연제 등 5개 공예공방을 선정, 메종&오브제 참가 준비와 수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더자기플러스(대표 정지윤)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차곡차곡' 등 23종의 도자상품을 선보인 다.
공예 명장인 한경희 한경희조형연구소 대표는 조명제품 '문라이트' 등 9종의 상품, 에이앤즈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맥악이 명태킴' 등 섬유상품 7종을 각 출품했다.
이 밖에 수다도자기(대표 이영순)와 연제(대표 김 숲)도 달항아리 등 26종의 상품을 전시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9월 3일 수요일

한전, '안전경영 혁신' 선언 6개분야 63개 핵심과제 추진

한국전력이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전사적 혁신에 나섰다. 안전제도 강화와 현장 관리체계 개선 등 6대 분야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100일 무재해 운동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원년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은 △조직·인력 등 자율원리 집적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공역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기술 확대 등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우선 조직과 제도 개편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하는 '안전 점검 기동팀'을 신설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또 정부와 협력해 현장 안전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과 협력사 지원제도도 강화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인력 관리, 스마트 CCTV 성능 고도화 등 첨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지원 및 안전예산 선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투자를 지원한다.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인다.
기술과 현장 혁신도 속도를 낸다. 절연 스틱 공법과 전주 인력으론 폐지 성과를 기반으로 휴전작업 확대, 다기능 작업차량 개발, 드론 공법 등 신기술을 본격 도입해 감전·추락 등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상의, 강기정 광주시장 초청 특강

시정운영 방향·발전 비전 주제 소통

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2030 광주 발전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지역 상공인과 주요 기관장 등 150명이 참석해 광주 경제 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강기정 시장은 AI·미래 모빌리티 대표도시 조성 전략,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현황, 지역 혁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이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AI와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장 전반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여야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 경제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복합적 어려움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에게 2030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광주경총, 직장적응 워크숍 참여기업 모집

25~26일 당일...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친화 직장문화 조성

광주경제자유총연합회는 청년 신입직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 상호교류 워크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입직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광주경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 친화 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적응 지원이 골자다.
광주경총은 현재 관리자 1413명, 신입직원 107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당초 목표한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또 설문조사 결과, 기업 참여 호응도와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왔다.
모집 규모는 교육 참여기업 신입직원 30여명 내외이며 오는 25일부터 26일 당양에서 열린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우수인력 확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기업의 청년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및 신입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등 일자리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불법 유통 안돼요"

KCA, 이용 종료 정책 홍보 서포터즈 모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건전한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참여형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현재 신규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기존 이용은 2026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불법 판매처 모니터링 △발착식 및 정기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수당, 수료증, 우수 활동자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콘텐츠는 진흥원 홈페이지, SNS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건전한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참여형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현재 신규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기존 이용은 2026년 12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불법 판매처 모니터링 △발착식 및 정기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수당, 수료증, 우수 활동자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 콘텐츠는 진흥원 홈페이지, SNS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롯데 광주점 '루셀김X김지희 작가'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4일까지 8층 이벤트홀에서 '루셀김X김지희 작가'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50년 전통의 보인 가전 전문 브랜드 '선일김과 루셀'과 미술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 아티스트 김지희 작가가 함께 컬래버레이션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10개월 만 '최저'

지난달 1.4% ↑...SKT 해킹사태 통신료 할인 여파 이상기온에 농축수산물 5% 가까이 상승 불안 요인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 10개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SKT 해킹사태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이 물가 상승을 억제한 반면,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은 5% 가까이 치솟았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6개월(3·4월 1.9%→5월 1.5%→6월 1.9%→7월 1.7%) 연속 1%대 상승률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요 등록품목을 보면 SKT 해킹사태로 인한 휴대전화료가 전년 동월 대비 21.0% 낮아지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는데 식품은 4.0% 상승한 반면, 식품 이외는 0.7%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11.8%, 신선채소는 3.6%, 신선과실은 2.7% 각 상승했다.
특히 이상기온의 연속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9% 올랐다. 배(38.4%), 포도(14.7%), 당근(43.7%)은 가격이 떨어진 반면, 쌀(14.0%), 사과(12.4%), 돼지고기(5.0%)가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6

(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11월(1.3%) 이후 9개월(12월 1.9%→1월 2.3%→2·3·4월 2.2%→5월 1.8%→6월 2.2%→7월 2.1%) 만에 가장 낮다.
전남 역시 휴대전화료가 21.0% 낮아지며 전반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식품은 3.9% 올랐고, 식품이외는 0.6%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8.1% 상승했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은 0.2%, 1.4% 각 하락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1년 전과 비교해 4.2% 치솟았다.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각 12.5%, 15.8% 뛰며 상승을 견인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11월(1.3%) 이후 9개월(12월 1.9%→1월 2.3%→2·3·4월 2.2%→5월 1.8%→6월 2.2%→7월 2.1%) 만에 가장 낮다.
전남 역시 휴대전화료가 21.0% 낮아지며 전반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식품은 3.9% 올랐고, 식품이외는 0.6%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8.1% 상승했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은 0.2%, 1.4% 각 하락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1년 전과 비교해 4.2% 치솟았다.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각 12.5%, 15.8% 뛰며 상승을 견인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KDN, 인사제도 개선 협약 노사 합동 투명·공정 TF 활동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인사제도 개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직무중심 인사운영 체계 토대 마련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던 지난 6개월간 운영된 인사제도 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였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조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TF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은 협약 진행 경과보고와 협약의 주요 내용 설명, 협약식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령서 제고를 위한 징계 및 퇴직제도 강화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실천 내용이 담겼다.
최은식 한전KDN 노조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인사 정책은 생산성이 제고된 업무 성과와 일·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출발선이다"면서 "노동조합과 이를 정책화하는 경영진의 상호 협력으로 노사 상생의 모범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근로자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바탕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계청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지원

호남지방통계청은 2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행을 위해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호남권 지역관리본부는 통계청 본청과 함께 총조사를 총괄·지원하게 된다.
올해 실시되는 총조사에는 모바일·전자·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도입,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현 호남통계청장은 "올해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대규모 총조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호남지방통계청은 2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행을 위해 호남권 지역관리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호남권 지역관리본부는 통계청 본청과 함께 총조사를 총괄·지원하게 된다.
올해 실시되는 총조사에는 모바일·전자·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도입,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현 호남통계청장은 "올해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대규모 총조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경제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